



첼리스트 정명화

세대 아우르는 클래식 트리오 환상의 앙상블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3월 28일 광주 공연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세대를 아우르는 정상급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준다.

광주일보사는 오는 3월 28일(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정명화·손열음·신지아 트리오 공연을 개최한다.

몇년 전부터 평창 대관령음악제 등에서 트리오 무대를 선보여 온 세 사람은 올해 'Music from PyeongChang'으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 각자 독보적인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세 사람이 듀엣, 트리오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는 게 이번 공연의 매력이다.

클래식계의 거장 첼리스트 정명화는 줄리어드 음대 졸업 후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등 입상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동생 정경화, 정명훈과 함께 '정트리오'를 구성,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정씨는 한국유니세프 전선 대사로도 활동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뉴욕 매너스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정씨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매년 독주회와 협연 무대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현재 바이올리니스트인 동생 정경화와 함께 대관령국제음악제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행사를 이끄는 중이다.

정씨는 새로운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명창 안숙선과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모티브로 한 창작곡을 연주했던 정씨는 올해도 안숙선, 손열음과 함께 같은 곡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던 1997년 영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입상한 후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영재 콘서트 첫 주자로 발탁됐다.

지난 2009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최우수 실내악 연주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2011년 제14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자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 연주자까지 휩쓸며 이름을 알렸다.

또 로린 마젤 등 거장들과 함께 뉴욕필 하모니, 로테르담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클래식 매니지먼트 회사인 IMG아티스트즈와 전속 계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IMG아티스트즈는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머레이 페라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펠만·힐러리한 등 유명 클래식 연주자들이 소속된 회사다.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한국이름 장영주)도 IMG 소속이다.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책 '하노버에서 온 음악 편지'를 발간하기도 한 그녀는 올해 평창겨울음악제의 부예술감독을 맡아 활동중이다.

전주 출신으로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조기 입학, 김남운 선생 등을 사사한 신지아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 음악 콩쿠르 3위(2012), 프랑스 퐁티보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등 4관왕(2008),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콩쿠르 3위(2007) 입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다니엘 하딩, 길버트 바그 등 세계적 거장들과 협연한 그녀는 KBS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더 콘서트' MC로 활동하며 클래식 대중화에 나서기도 했다. 또 통통 클래식 연주와 함께 세계 각지의 포크송을 모아 편곡한 '칸토 안티고' 음반을 발매하는 등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세 사람은 솔로로, 듀엣으로, 트리오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첫 곡은 손열음과 신지아의 듀엣 무대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1번 E단조'를 연주한다. 이어 정명화와 신지아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번호 7'을 들려주며 손열음은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F장조'를 연주한다.

피날레 무대는 세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 E단조 돌키'다. 모두 5악장으로 구성된 '돌키'는 슬라브 민요의 일종으로 우수 어린 선율과 흥겹고 열정적인 리듬이 인상적인 명곡이다.

25일 낮12시 티켓을 오픈(티켓마루)한다. 티켓 가격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A석 3만3000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이남, 러시아 '사이버페스트' 참여

대규모 미디어아트 전시회...작품 2점 출품



'꽃과 만물'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가 25일부터 2월7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리는 대규모 미디어아트 전시 '사이버페스트'에 참여한다.

행사를 공동 기획한 러시아 연방 아티스트는 러시아 작가 1만5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 비영리 단체이며 'Cyland Media Lab'은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뉴미디어아트 단체다.

사전에 이 작가의 작품을 접한 전시 큐레이터들이 작품 속에 나타난 철학적, 초월적,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주목하며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

이 작가는 두 장소에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Academy of Art and Design'에서는 '존재의 효과' 주제에 맞춰 작품 '꽃과 만물'을, '공간의 읍션'을 주제로 펼쳐지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Academy of Arts'에서는 '우유 따르는 여인'을 전시한다.

'꽃과 만물'은 화려한 꽃을 등장시키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동양의 '화무십

일홍', 서양의 '바니타스' 의미를 담아 시간 흐름에 따른 만물 변화를 표현했다.

'우유 따르는 여인'은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하녀'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했다. 수직으로 길게 뻗은 화면을 설치해 여인이 따르는 흰 우유가 심연으로 떨어져 내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무채색이었던 배경은 점점 색이 입혀지며, 새벽녘부터 깊은 밤까지 빛의 궤적을 따라간다.

한편, 이이남 작가는 지난해 국내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한국적 미디어아트를 선보였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한국의 자개'전, 노르웨이 베스트 포센 미술관 '한국아티스트 그룹전', 말레이시아 페낭 '2016 조지타운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또한 '부산 비엔날레'에서는 구글의 VR 필터 브러쉬 기술을 접목시킨 협업 전시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재 2월12일까지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남경국제미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설 연휴 27~29일 정상 개관

광주시립미술관이 시민 관람 편의를 위해 설 연휴기간인 27일부터 29일까지 정상 개관한다. 원래 휴관일(매주 월요일)인 30일은 문을 닫는다.

현재 시립미술관에서는 '하정웅청년작가 초대 빛2016'(2월19일까지), '호남 미술을 말한다. 아카이브 2'(2월19일까지), '이준석 오월그림-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1월29일까지) 전시가 진행 중이다. 아트라운지에서는 '2017 미술관 신년기획-꼬꼬오~'전이 2월19일까지 열린다. 또한 어린이갤러리에 놀이 중심 미술복합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와 광장에서는 '빛 조각전'이 열리고 있다. 문의 062-613-7113.

/김용희기자 kimyh@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전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을의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